

〈제 639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 신입행원 사령장 수여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본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의 직무연수와 6개월의 수습근무를 마친 29명의 신입행원에게 사령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진정한 은행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긴 여정에 성실히 임한 신입행원들을 격려하며 한명 한명에게 휘장을 달아주었다.

신입행원들은 창구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연수를 비롯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소화했으며, 현장에서 금융환경을 몸소 체험하며 은행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힘을 쏟았다.

### 금호타이어

#### ◆ ‘또로, 로로’ 캐릭터로 고객과 소통 나서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캐릭터 리뉴얼을 통해 기업 광고를 넘어서 스마트스토어 등 쇼핑몰 오픈을 진행하며 캐릭터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타이어를 은유적으로 형상화한 ‘또로’는 2010년 최초 개발된 금호타이어 캐릭터로 2019년 전체적인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캐릭터 리뉴얼 작업을 거친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고객과의 소통과 친근한 브랜드가 되기 위한 캐릭터 마케팅 활동은 스마트폰 및 키덜트 문화와 캐릭터 소비자층이 전 연령대로 확대됨에 따라 캐릭터의 활용 범위가 더 다양해지면서 기업 및 소비자층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양에너지

◆ 청년 일경험 제공 노력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광주경총에서 수행중인 ‘광주청년일경험드림’-기업형 사업 제10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기업형 사업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광주경총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사업으로, 지역 청년의 장기 미취업 상태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며,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드림터)에서 직무역량을 쌓고, 근무이후에는 자기계발이나 취업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사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해양에너지는 2020년도 제8기부터 사업에 참여했으며, 8기와 9기 총 18명의 청년들에게 직장 생활과 직무경험을 체험하고 취업에 도움을 주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 II. 광주경충 소식

### 〈청년일경험드림 드림청년 직무역량강화교육〉



본회는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기업형 9기 드림청년 130명을 대상으로 직무별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현장에서의 다양한 직무경험과 직무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자 진행된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기업형에 참여중인 드림청년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의 생애설계와 함께 진로탐색 및 진로설정의 시간을 가졌다.

### 사무국 일지(7.5 ~ 7.9)

7.5 (월)	● 판로개척 기업선정 심사위원회의	7.8 (목)	● 노사갈등 조정 전문가 교육(~9)
7.6 (화)	● 전남지노위 심판회의 ● 청년일경험드림 드림청년 직무역량 강화교육(~7)		
7.7 (수)	● 중장년센터 전직지원 상담	7.9 (금)	● 제1525회 금요조찬포럼

### 〈제1525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이정모(국립과천과학관장) 주제: 과학자들의 대화법**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7월9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을 초청하여 「과학자들의 대화법 -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결」이란 주제로 제1525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직접 본 적은 실제로 없다.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되며 태양계에서 보면 지구는 중심이 아니다. 그저 변두리일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의 사람으로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외부의 어떤 힘이 천체들을 돌린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많은 과학이 수세기가 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 천동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이 물, 불, 흙, 공기의 4원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거운 땅덩어리인 지구가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천동설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2가지 외양적 변화를 요구했다. 첫 번째 변화는 우주의 겉보기 크기와 관련이 있고, 2번째 변화는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낸 책이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였다. 바로 천동설과 지동설을 설명한 것이다. 과학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관측, 초기모형, 예측, 새로운 관측, 수정모형, 반증, 과학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나 메신저가 한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의심해봐야 한다. 과학은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 아니다. 과학은 생각하는 방법이다.

현대과학은 우리는 모른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기존의 의견을 기꺼이 바꾸는 것이다.



## 1. 노사 동향

###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개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 6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 발족식 및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근면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

※ 근면위 위원장으로는 조성혜 위원(동국대 법학과 교수)이 선출

- 회의는 격주로 개최하고,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해 공개 예정
- 경영계와 노동계는「제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근면위 논의에 대한 기조를 설명
  - 경영계는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대한 급여 문제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시간면제제도 문제를 재논의하게 돼 불필요한 갈등 초래가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다만, 적극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
  - 노동계는 근로시간면제한도의 확대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별도 부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가 협력해 원만하게 근면위 관련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참고] 근면위 위원 구성 현황

##### 【공익위원】

- 권순원(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희성(강원대학교 법전원 교수), 노상헌(서울시립대학교 법전원 교수), 박지순(고려대학교 법전원 교수), 조성혜(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사용자위원】

- 류기정 전무, 남용우 상무, 황용연 본부장(이상 경총), 박재근 상무(대한상의), 이태희 상무(중기중앙회)

##### 【근로자위원】

- 이동호 사무총장, 박기영 사무1처장, 유정엽 본부장(이상 한국노총), 박홍배 위원장(금융노조), 황인석 위원장(화학노련)

#### ■ 민주노총, 불법 집회 강행

-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800여명을 넘어서고,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7. 3 종로3가 삼일문 일대에서 조합원 약 8,000여명이 참여하는「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

※ 경총은 민주노총 불법집회에 대해 그동안 국민이 지켜온 방역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릴수 있는 위험한 집단행동이므로 불법집회를 철회하고 감염병 예방에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7. 2)

-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對) 정부 투쟁 지속과 11월 총파업 총력 조직화 방침을 밝힘.

#### ■ 금속분야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간 산별교섭이 공전인 가운데 금속노조는 7. 6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투쟁일정 수립

- 금속노조는 산별교섭 타결을 압박하기 위해 7. 21 경고파업(주·야 각2시간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8월에는 전면파업을 추진한다는 방침

※ 노조는 7. 2 일괄조정 신청, 7. 5 ~ 7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 2. 법제 동향

### ■ 임종성 의원(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7. 2)

- (발의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를 신고할 의무는 미규정
  - 사업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위급상황·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미루어 피해를 더욱 악화
- (주요 내용)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들에 의한 성희롱 고충 역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임을 명확히 정의

### ■ 권철승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7. 2)

- (발의 이유)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근무장소에 대한 유연성 제공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주요 내용) 현행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근무할 수 있는 재택 및 원격근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택 및 원격근무 활용 횟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택 및 원격근무를 활용하며, 재택 및 원격근무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 박홍근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7. 5)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임신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지는 않아 임신한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모집·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

○ (주요 내용)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여부를 추가

#### ■ 구자근 의원(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7. 5)

○ (발의 이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복귀의 개념을 해외인소싱에서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해당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

-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 설비 증설과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와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 (주요 내용) 국내복귀의 정의를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에 포함

#### ■ 안민석 의원(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7. 5)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자녀유무·출산계획 등에 관한 질문으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혼인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기재 요구, 질문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 기동민 의원(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 발의(7. 5)

- (발의 이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 정보 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 (주요 내용)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 폐지